

한 심정으로 매회 관망하는 자세를 취한 후에야 입추할 것이다.

최근에 일고 있는 생산성 저하가 종계장에 얼마만큼 파급되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지가 향후

병아리 생산에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1/4분기가 지나면서 해소될 것으로 가정해 볼 때 앞서 설명한 통계자료와 양계협회에서 발표하는 10대 사료업체 육계사료

생산실적, 경제상황, 경험, 출하월의 소비지수 등을 감안하여 값싼 병아리를 입추하였을 경우 생산비 이상에서의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91년 육계가격 700~900원 예상

주 재 진

천호부회장 천안영업소장

히 망찬 91년을 맞이하여 모든 전국 육계인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90년도 육계업은 부화장의 유래 없는 호황을 맞이하여 고가의 병아리 가격이 형성된 반면에 육계 가격은 전반기에는 생산원가 이상으로 유지되었지만, 후반기에는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되어 다수의 생산자가 적자를 보는 한해였다.

(표 1참조).

이런 원인은 병아리 가격이 연중 높게 유지되었고 사료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원가의 상승이 더욱 적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91년도 육계 경기를 전망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육계업계의 모든 여건과 통계를 고려해 보면서 다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생산측면

91년도의 생산측면은 90년도 종계(PS)입식수수를 알아보면 예

측할 수 있다.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89년도 대비 약 23%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몇년 사이에 종계 증가량으로

〈표 1〉 연도별·월별 육계가격

(단위: 원/kg)

연도 월별	86	87	88	89	90
1	966	1,002	947	1,363	1,168
2	740	726	951	900	1,142
3	650	816	712	829	1,301
4	800	880	682	803	1,132
5	957	972	747	779	921
6	898	816	646	998	749
7	895	858	908	1,190	1,065
8	908	602	1,055	1,265	968
9	630	511	1,014	814	781
10	608	447	912	860	890
11	885	611	1,094	1,050	836
12	840	731	1,117	1,150	777
계	815	748	899	1,000	977

보면 가장 많은 증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증가량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보면 전반기는 89년도 전반기 대비 16% 증가 후반기는 89년도 후반기 대비 43%의 증가로, 특히 후반기 종계의 증가는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육계 병아리 생산 잠재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장기간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생산잠재량은 1/4분기에는 큰 증가없이 작년수준에 비해 조금 증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예상되며 의외로 1/4분기는 부화장의 환우에 의한 생산조절과 생산농가의 오염, 추위, 질병에 의한 생산저하에 의해 육계 가격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도 있으므로 질병없이 정상적으로 잘 키운 농장은 흑자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걸프전쟁 상황과 지자체 실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분기는 부화장에서 복병아리 생산을 위해 서서히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에서와 같이 7~10월 사이 종계입식이 많고 환우계가 추가되면 육계 병아리 생산잠재량은 연중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자 입장에서 연중 소비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 시기에 입추를 포기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생산자는 농장 규모에 맞도록 입추를 조절하고 부화장에서는 생산성 저하, 종계의 조기

도태 등으로 생산량을 조절해 나간다면 적정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90년도에 성행하던 일명 백세미 병아리가 91년도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숫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4분기는 부화장에서 종계노계, 도태 및 환우 등으로 생산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추석 이후의 소비가 감소하는 시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4분기도 생산 잠재량이 90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입추

〈표 2〉 육용종계 입식현황

(단위 : 수수)

년 월	1988	1989	1990
1	134,500	94,450	149,600
2	188,900	206,900	239,100
3	314,480	291,400	285,740
4	290,800	264,400	324,690
5	210,900	252,200	335,800
6	237,600	278,600	291,760
7	290,910	319,000	373,674
8	231,130	296,890	427,000
9	278,450	257,200	398,160
10	246,150	217,150	419,700
11	108,400	192,900	256,200
12	149,600	189,500	255,900
계	2,804,300	2,860,590	3,757,306

〈표 3〉 육용계 생산 잠재량

(단위 : 천수)

년 월	1989	1990	1991
1	22,532	20,471	26,206
2	23,373	20,983	27,866
3	24,283	22,136	30,357
4	25,258	23,597	32,891
5	25,477	24,435	34,716
6	22,321	24,916	
7	23,191	24,509	
8	20,542	23,010	
9	18,845	21,919	
10	19,087	22,117	
11	20,072	23,615	
12	20,125	25,052	
계	265,106	267,758	

시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3/4분기의 생산조절을 주시하며 입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분기에 부화장에서 생산 조절이 잘 이루어지면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91년도 생산 잠재량으로 볼 때 90년도 보다 25~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느 시기에도 항상 불황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육계 불황은 일반적으로 어느 시기에 생산이 과잉되어 공급될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업계(부화장, 생산자)의 모든 사람들이 긴밀한 협조와 합심된 마음가짐으로 잘 대처해 나가면 꼭 불황만을 예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제 육계인이고 부화장이고 장기 불황이 오면 다같이 불행으로 가는 길이므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단합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며 닭고기 소비촉진에 다같이 힘을 기울이면 어떤 불황도 이겨 나갈 것으로 본다.

2. 소비측면

닭고기 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88년 올림픽 이후부터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소비 증가를 가져 왔다.

91년도에는 외식산업과 부분육의 개발로 약 15~20%의 소비증가를 예상하고 향후 몇년 사이에

**금년의 병아리 가격은
부화장의 생산원가 상승과
신규 계사의 증가,
계약사육의 증가로
인하여 200원 이하는
거래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육계가격은 700~900원
사이가 많이 형성될 것으로**

소비는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91년 육계 병아리 생산 잠재량은 약 25~30%의 증가로 소비 증가보다 앞서가므로 입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가격측면

91년도 육계 가격은 등락이 교차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본다.

병아리 가격은 육계 가격의 등락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가격 등락폭은 전반기 2번, 후반기 2~3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육계 가격은 질병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의외의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과 환경적 요인에 잘 대처해야 하며 부화장과 생산

자가 서로 협의하고 협심하여 생산조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91년은 생산원가를 최대한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 장기 불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만연하고 있는 질병에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며 금년의 병아리 가격은 부화장의 생산원가 상승과 신규 계사의 증가, 계약사육의 증가로 인하여 200원 이하는 거래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육계가격은 700~900원 사이가 많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생산원가 절감을 잘 하는 농장은 이겨 나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하나의 예측에 불과할 뿐 꼭 맞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그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특히 육계가격은 소비, 경제, 정치 사정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요인도 항상 주시하여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끝으로 항상 불황 속에 호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확한 판단과 용기있는 결정으로 사업에 발전이 있기를 빌면서 자기 사업에 신념과 보람을 가지고 사업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양계**